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의 성과와 시사점

이 선 경^{1,*} · 강 상 규²

¹청주교육대학교 · ²유네스코한국위원회

Outcomes and Implications of UNESCO ESD World Conference

Sun-Kyung Lee^{1,*} · Sang-Kyoo Kang²

¹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²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BSTRACT

The UNESCO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Moving into the Second Half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was held in Bonn, Germany, from 31 March to 2 April 2009, as the DESD approaches its mid-point. It brought 900 participants including 47 ministers and deputy-ministers of education from 147 countries. The objectives of the conference were to: (1) highlight the essential contributio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to all of education and to achieving quality education ("Why is ESD relevant?"); (2)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 on ESD ("What can we learn from each other?"); (3) carry out a stock-taking of DESD implementation ("What have we achieved so far, what are the lessons learnt?"); (4) develop strategies for the way ahead ("Where do we want to go from here?"). The conference provided opportunities for all participant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SD as the way to meet challenges of the present unsustainable world and discuss outcomes of first-half of DESD and action plans for second-half of DESD. In particular, one plenary session was focused on the DESD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cess, with a presentation of the key findings of the draft global report on the context and structures of ESD, as well as regional perspectives. As a result of the conference, participants adopted the Bonn Declaration which would serve as the backbone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post-Bonn proces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DESD.

Key words :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DESD, UNESCO, Bonn declaration

I. 서론 : 회의의 배경과 개요

지속가능한 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은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핵심적인 도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지구적으로 지속되는 빈곤과 불평등,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기 등에 근거해서 볼 때 21세기를 맞은 전 세계는 전환점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런 도전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UNESCO, 2009a).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고 방식과 행동을 전지구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은 여러 국제 회의를 통하여 강조되었다. 1972년 스톡홀름 UN회의(UNCHE, 1972)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이 결정적임을 인식한 이래 Agenda 21(UNCED, 1992)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교육, 대중 인식, 연수 등을 증진할

* Corresponding Author : e-mail : sklee@cje.ac.kr, Tel : +82-43-299-0750, Fax : +82-43-299-0758

필요가 강조되었다. 또한,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담(WSSD, 2002)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2005~2014의 10년을 UN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DE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2002년 12월 UN 총회에서 채택되어 선포되었으며, 유네스코가 이의 선도기관으로 지정되어 협력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UNESCO, 2004; 이선경외, 2005).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 가치, 실재를 교육과 학습의 모든 측면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개인이 인도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경제적으로 성장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치, 능력, 지식, 기능 등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UNESCO, 2005). ESD는 형식 교육, 비형식 교육 모두에 관련되며, 어떤 맥락에서든 간학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 방식으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능력을 증진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한다(이선경외, 2005). ESD의 4가지 핵심 추동력(thrusts)은 질 높은 교육의 수혜 증진,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기존 교육의 재정향, 대중의 인식과 이해 증진, 특별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처하게 해 주는 연수이다(UNESCO, 2005).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된 DESD가 올해로 5년째가 되어 중간 지점에 이르게 됨에 따라 현재까지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UNESCO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개최되었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독일의 본(Bonn) 세계학술회의장에서 개최된 이 회의는 전체회의와 전문가 워크숍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5년 동안 ESD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교류하는 동시에 향후 5년 동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탐색하고, 이의 결과 본(Bonn)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본(Bonn) 회의는 유네스코 소집회의 분류기준 중 카테고리 IV(국제전문가회의/International Congress)에 해당되어 정부 대표성은 없으나, 독일, 일본, 중국, 이집트 등 교육장차관 47명을 비롯해 147개국 900여명¹⁾이 참가하여 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본 선언 및 회의의 결과는 제 35차 유네스코 총회에 보고되고 DESD 후반기 이행의 중추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본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본 선언의 내용을 고찰하고, 이의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은 향후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의 참석을 통하여 발표와 논의 사항 및 DESD의 추진 상황을 개괄한 보고서의 분석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재 상황을 개괄하고, 본 선언을 통해 제시된 향후 추진 방향을 고찰한 후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에의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II. 전체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성과

1. 본 회의의 개관과 목표

본 회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4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 목표는 회의 전반을 통해 제시되었다. 전체 회의는 물론 워크숍에서의 활동과 논의도 이들 목표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 목표 1 : 모든 교육과 질 높은 교육을 성취하는데 있어 ESD가 필수적임을 부각한다.
 - 왜 ESD가 관련되는가 ?
- 목표 2 : ESD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를 증진한다.
 - 우리는 서로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 목표 3 : DESD의 수행 현황을 파악한다.

1) 남 53%, 여 47% (UNESCO, 2009b)

- 현재까지 우리가 성취한 것은 무엇이며, 이로부터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목표 4 : 향후 ESD 진행 전략을 개발한다.

-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러한 4가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본 회의에서는 다음의 4가지 핵심 주제 범주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I.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도전 과제와 ESD의 관련성, II. ESD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III. ESD를 위한 역량 강화, IV. ESD와 교수-학습 과정 등이다. 이들 주제 범주는 주로 워크숍을 중심으로 접근되었는데(표 3 참조), 각 워크숍에서는 양성, 포괄, 문화, 전통적 지식, 인권, 유엔 새천년개발목표(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본(Bonn) 회의는 크게 개회식, 전체 회의, 워크숍, 부수행사, 포스터 발표, 우수 사례 전시, 특별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회의 및 워크숍과 별도로 교육장차관 고위급 회담(High-level Segment)²⁾이 개최되었다³⁾. 본 회의에 한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대표단, 교육과학기술부 담당관 등 정부 대표단과 전문가 등 9인이 참석하였다.

2. 전체 회의와 글로벌 리포트를 통해 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추진 성과

전체 회의(Plenary sessions)는 개회식과 4회의 전체 회의로 구성되었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니콜라스 버넷(Nicolas Burnett) 유네스코 사무총장보가 대독한 고이치로 마쓰우라(Koichiro Matura)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통해 사회 경제적 위기, 기후 변화,

사회 갈등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 시점에서 ESD가 ‘변화를 위한 학습(education for change and learning to change)’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후 아네트 샤반(Annette Schavan) 독일 교육연구장관의 축사, 라니아 알 압둘라(Rania Al Abdulla) 요르단 왕비의 축하 메시지와 그라시아 메이첼(Gracia Machel) 모잠비크 전 교육문화장관의 기조 연설 등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세계 금융 및 경제 위기가 지속 불가능한 경제발전 모델과 관행에서 비롯되었음이 반복되어 언급되었고, 경제 문제를 비롯한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서 ESD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단호한 행동이 강조되었다. 이어서 청년 대표 2인의 발언을 통해 전달 개최된 청년 대표 25인의 워크숍의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ESD는 분야간 과목간 대화이며 행위가 되어야 하며, 다양성 속에서도 공동의 목적지가 필요하고, 사람들의 일상적 삶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ESD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하고, 기존의 ESD의 구조를 강화하며 새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ESD를 정책에 포함하고, ESD의 우수 사례나 과정에 대한 연구·출판·공유 등 향후 핵심 실행 전략을 제안함과 동시에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인 20세 이하 젊은이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4회의 전체 회의에서는 주로 본 회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하고, 본 회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리포트, 즉, DESD 1차 평가 보고서 초안의 개요와 각 지역 별 ESD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본 회의의 평가 및 본 선언의 채택 등이 이루어졌다.

먼저 마크 리치몬드(Mark Richmond) 유엔 우선사업국장은 2007년 유네스코가 구성한 모니터링 및 평가 전문가 그룹(Monitoring and Evalua-

2) 이 고위급 회담에서는 참석자의 자격을 장관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한국 대표단은 참가할 수 없었다. 고위급 회담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quality education)에 ESD의 기여 방안,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의 주요 역할, DESD 후반부의 노력 가속화, 지속가능한 실재를 향한 변화의 시급성 등을 논의하였다. 아태지역 참가국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몰디브, 네팔, 니우에, 필리핀, 라오스, 스리랑카, 바누아투 등이다.

3) 전체 프로그램 및 발표 내용은 본 회의 공식 웹사이트 참조. <http://www.esd-world-conference-2009.org/>

tion Expert Group, MEEG)이 DESD 10년간 3차에 걸쳐 각기 다른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ESD의 맥락과 구조에 초점을 둔 제 1차 DESD 글로벌리포트 초안을 근거로 DESD 전반기(2005~2009)의 이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어 발터 힐체(Walter Hirche) 독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ESD 세계회의의 목표 4가지와 주제 범주 4가지를 소개하였다.

다니엘라 티이버리(Daniella Tilbury) 유네스코 모니터링·평가 전문가그룹위원장은 2007년 UNESCO 모니터링·평가 전문가 그룹의 결성과 DESD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GMEF; Global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을 발표하였다. DESD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은 3차에 걸친 과정으로 각각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는데, 그 중 2009년에는 맥락과 구조에 초점

을 둔 보고서를, 2011년에는 과정과 학습에 초점을 둔 보고서를, 2015년에는 DESD의 영향과 성과에 초점을 둔 보고서 등을 발간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에는 설문지, 보충 연구, 여러 이해 집단의 의견 반영, 종단적 평가, 인터뷰 및 자기 평가 과정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알젠 발스(Arjen Wals) 글로벌 리포트 코디네이터는 ESD 수행의 맥락과 구조에 대한 글로벌 리포트 초안 중 강조하고 싶은 점 몇 가지와 제안 사항 중 중요한 점 몇 가지를 발췌하여 소개하였다. 제 1차 DESD 평가 보고서인 글로벌 리포트 초안은 10가지 핵심 보고사항(key findings)과 10가지 제안 사항(ways forward)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핵심 보고사항의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제 1차 DESD 글로벌 리포트 초안에 포함된 핵심보고사항⁴⁾

핵심 보고사항	내용 및 쟁점	해결을 위한 노력
ESD의 의미	ESD는 지역, 국가, 지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석	ESD 의미에 합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 차원의 토론이 중요
DESD에서의 유엔의 역할	ESD 이행에 많은 유엔 산하 기구들이 관여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실시	부문 간 협동을 강화하고 유네스코 본부 및 지역사무소의 인적·재정적 자원 동원
ESD 국가 조정기구	2008년 97개국 중 79개국 설치. 지역적 편차 있음	설치에 이르는 과정과 실제 역할에 대한 통찰 필요
ESD 국가 정책 문서	많은 국가들이 ESD 국가정책문서 발간	구체적인 ESD 정책 또는 전략이 부재하므로 이의 개발 필요
ESD 정부부처간협력	ESD에 대한 정부 부처간 협력 부족	부처간, 관계자간 연계 구축 노력 필요
형식교육과 ESD	많은 국가들이 ESD를 정규교육, 특히 초·중등 교육에 포함함.	향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기관의 전반적인 운영방식 등 재설계 필요
비형식·무형식 교육과 ESD	양과 질의 면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심 있는 비정부기구,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 자원 배정 필요
ESD 연구·개발·보급	세계적으로 ESD 연구 개발 미진. 주로 형식교육, 정책 마련, 제도 등	ESD 질적 평가 필요
ESD 국제 네트워크	다양하고 풍부한 지역협력 사례 있음, 대학, 정부 부처, 기업, 비정부 기구 등 참여	계속하여 다양한 협력 방안 구축 필요
정부 예산·인센티브	ESD를 위한 정부 예산이나 경제적 인센티브는 없거나 매우 미미	정부 예산 구조에 ESD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

4) DESD 1차 평가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www.esd-world-conference-2009.org/en/whats-new/news-detail/item/desd-monitoring-evaluation-process-1.html>

이들 중 중요한 내용을 보면, 먼저 ‘DESD에 대한 유엔의 기여’로 ESD의 발전을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관련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한 가지 중심된 노력은 아니므로 지역적 수준에서 또는 국가적 수준에서 자기 평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SD 국가 추진체’는 자기평가보고서를 제출한 97개국 중 79개국에서 설립되었다고 보고함으로써 대부분의 나라에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각 지역에 따라 설립 정도가 다르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비형식적 교육에서의 ESD’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들의 질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고, ‘ESD 연구 및 논의’는 잘 발전되지 않았으며, 주로 형식 교육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들 연구 결과는 실천가들보다는 주로 동료 연구자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예산의 사용 가능성과 ESD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노력과 고려를 시작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실행을 위한 제안 사항 중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교수-학습을 재정향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 정책을 개발하는 것, 학교 커뮤니티의 연계와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접근(whole school approaches)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사, 관리자 등의 ESD에 관련된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는 역량 강화’도 중요하며, 환경 교육 및 ESD에 대한 접합을 통해 평화교육, 양성교육, 기후 변화 교육, 소비자 교육 등 ‘다른 관련 교육 영역과의 시너지를 도모하는 것’과 ESD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과 혁신 사례에 관련된 ‘ESD 교육자료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계속 갱신하는 것’, ‘국제적, 지역적 협력 특히 남-북, 남-남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적 전략을 강화하는 것’,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관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등도 중요하다.

5개 지역별 ESD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 방향도 전체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이를 각 지역별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유럽지역의 ESD의 현황과 문제점은 안드레아 카라마노스(Andreas Karamanos) UNECE(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운영위원회 의장이 보고하였다. UNECE는 유럽 지역 56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럽 지역의 ESD에 있어 핵심적인 성과는 2005년 ESD를 위한 유럽지역의 전략을 수립하고 3 단계에 걸친 모니터링과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ESD 수행과 진척 사항을 조사하고 2007년 1차로 36개국의 수행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표 2 참조). 이 지역의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파트너십 형성시에 이해집단을 참여시키기, ESD 수행 능력(competencies)을 개발하기, 교수 도구, 자료, 연구 개발하기, ESD 개념을 심화시켜 사회-경제적 관점과 통합하기, 적절한 인적, 물적 자원 배분하기, 전통적인 지역의 지식 이용하기, 향후의 의사 결정자들 특히 유아들의 교육에 관심가지기, 사회 전체의 SD를 증진하기 위해 ESD를 이용하기’ 등을 들었다.

아랍 지역의 ESD에 대해서는 압델 모네임 오스만(Abdel Moneim Osman) UNESCO 베이루트 사무소장이 보고하였다. 아랍 지역은 22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SD 수행의 단계를 2005~2007년은 활동과 계획의 시기, 2008~2011년은 헌신과 구축의 시기, 2012~2014년은 follow-up과 평가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 지역의 핵심적인 성과는 19개 보고국 중 16개국이 ESD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으며, 16개국이 ESD 담당기관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6개국이 ESD 국가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다는 점이며, 이 중 요르단은 이 추진위원회에 산업계를 포함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ESD에 관련된 명확한 합의가 없다는 점,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ESD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 입안, 아랍 지역의 자료개발, 지역적 협력 강화, 중요 대학과 기관 참여시키기 등을 들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ESD 현황은 데렉 엘리아스(Derek Elias) UNESCO 방콕 사무소 직원에 의해 보고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4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성과는 아태 지역

표 2. 세계 5개 지역별 ESD의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지역	핵심적 성과	문제점	향후 추진방향
유럽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ESD를 위한 유럽지역의 전략 수립 · 3 단계에 걸친 모니터링과 평가 계획 수립하고 ESD 수행과 진척 사항 조사 · 2007년 1차로 36개국의 수행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십 형성시에 이해 집단 참여 · ESD 수행 능력(competencies) 개발 · 교수 도구·자료·연구 개발 · ESD 개념을 사회-경제적 관점과 통합 ·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 배분 · 전통적인 지역의 지식 이용 · 향후의 의사 결정자들에 관심 가지기 · 사회 전체의 SD를 증진 위해 ESD 이용하기 	
아랍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D를 위한 노력 시작(16개국) · ESD 담당기관 지정(16개국) · ESD 국가추진위원회 설립(6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D에 관련된 명확한 합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D 정책 입안 · 아랍 지역의 자료 개발 · 지역적 협력 강화 · 대학과 기관 참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 지역 모니터링 평가 프로젝트의 수행 · 각 나라별 현황 업데이트 · 소지역별(sub-regional) 역량 강화 워크숍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응률 낮음 · 국가별 ESD 코디네이터 지정 부족 · ESD 인식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들과 프로그램 사이의 연계 강화 · 교육 정책과 관련 · SD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ESD 강조 · 기능적 방법 공유 · 구조적인 해결책 만들기
아프리카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아프리카 ESD 전략 수립 · 아프리카의 다른 네트워크들 일부 노력 · 네트워크, NGO 등에서 노력 · 발간물들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저조 · 국가 ESD 정책 결여 · ESD 네트워크 고립 · 일부 국가의 형식/비형식 교육에 반영될 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D를 정치적 의제로 가져 오기 · ESD 이해 집단 파악 및 협력 · UNESCO의 지원 중요 · ESD 예산 증가 · 질 높은 기본 교육 제공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개국 중 12개국이 설문응답 · 이해 집단의 자문 받음 · 보완 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간의 조정 부족 · ESD에 대한 명확한 이해 부족 · 수행 부진 · 모니터링 평가 연구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D 관련 노력 추가 · 기존 영역과 통합 노력 · 기존의 전략, 인프라 재할 · 네트워킹 강화 · 지역 상황에 근거한 좋은 사례 발굴/축적 · 연구 증진 · 세대간 교류 증진

모니터링 평가 프로젝트의 수행과 각 나라별 업데이트, 소지역별(sub-regional) 역량 강화 워크숍, 글로벌 리포트 진행 등이다. 문제점으로는 비교적 반응률이 낮으며, 국가별 ESD 코디네이터가 정해지지 않은 곳이 많고, ESD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실제 행위자들과 프로그램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고 노력을 집중하기, 교육계의 정책과

관련시키기, SD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ESD를 강조하기, 기능적인 방법 공유하기, 기회와 문제점을 잘 분석하여 구조적인 해결책 만들기 등이며, 따라서 각 국가의 ESD에 대한 주인의식, 지역(local) 수준의 참여, 각 국가의 리더십과 유네스코의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의 ESD는 티럭 부와니(Teeluck Bhuwance) UNESCO 다카르 사무소 직원이 보

고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은 동-남, 서-북으로 구분 가능한데, 전반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참여가 낮고, 국가 ESD 정책이 결여되었으며, ESD 네트워크는 고립되어 있고, 일부 국가의 형식/비형식 교육에 반영될 뿐 참여가 저조하다고 하였다. 핵심 성과로는 2006년 아프리카 ESD 전략 수립, 아프리카의 다른 구성체들이 일부 노력하고 있으며, ESD 위해 일하는 네트워크, NGO 등이 있고 발간물들도 생성되고 있다고 하였다. 도전 과제는 ESD를 정치적 의제로 가져오기, ESD 이해집단을 파악하고 이들을 실제적인 수준에서 함께 일하게 하는 것, UNESCO의 지원, ESD 지원 위한 예산 증가, 질 높은 기본 교육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⁵⁾.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ESD는 아스트리드 홀란더(Astrid Hollander) UNESCO 산티아고 지역 사무소 직원에 의해 보고되었다. 이 지역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을 총괄하며, 각 지역이나 국가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핵심 성과로 33개국 중 12개국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며, 이해집단의 자문을 받고, 보완 연구를 수행한 점을 들었다. 문제점으로는 각 기관간의 조정 부족, ESD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족을 들었으며,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일부 나라만이 ESD 규준을 개발하였을 뿐 ESD의 여러 영역에 걸친, 총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수행이 부진하고, 모니터링과 평가가 연구 부족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향후 계획으로는 ESD 관련 노력을 새로 더함은 물론 기존 영역과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기존의 전략, 인프라 등을 재활시키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며, 지역 상황에 근거한 좋은 사례를 발굴/축적하고, 연구를 증진하며, 세대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것 등을 들었다.

이들로부터 전체 회의 및 DESD의 전반기 추진 성과를 평가한 메리 조 피고찌(Mary Joy Pigozzi) DESD 유네스코 고위급 패널은 회의 전반에 걸쳐 ESD에 관한 내용과 실행이 주를 이

루고 있으며, ESD와 EFA(Education for All)의 통합에 관한 논의, ‘질(quality)’과 ‘관련성(relevance)’, 선택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필수 도구로서의 ESD 등이 논의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향후 5년 동안의 강조점으로 각 나라에서의 ESD를 구조화하고, 간학문적인 특성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개발 계획 등에 ESD를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모든 형태의 교육에 ESD를 통합하고, 교사교육과 고등교육에 ESD를 통합하며, 서로로부터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탐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현재까지 ESD와 관련하여 정치적 의지와 재정적 지원 등이 부족하므로 이를 위해 신속한 행동을 요청하였다.

3. 워크숍을 통해 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추진 성과

워크숍은 4가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설정된 주제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의 첫날과 둘째 날은 주제 범주 중 ‘I. 지속가능발전 핵심 도전 과제와 ESD의 관련성 II. ESD를 위한 파트너십 형성’에 대한 11개 주제별 워크숍의 전반부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회의 세 번째 날에는 세 번 11개 주제별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각 참가자는 참가 등록시 희망 워크숍을 신청하고 이에 참가하였다. 각 주제범주별 워크숍은 표 3과 같다.

각 워크숍은 주제의 특성 및 진행 그룹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각 주제에 해당되는 사례의 소개를 위한 전체 회의와 분과 모임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쟁점에 대한 제언 도출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워크숍이 수행되기 1~2주전 이메일을 통하여 참가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전문적 식견을 워크숍에 반영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워크숍 이외에 본 회의에서는 프로젝트에 기반한 외부 체험 워크숍도 진행이 되었다. 이는 ESD와 관련된 각 정부 기관, 연구소, 학

5) 현재 초등학교 취학률 90% 정도로 증진되었으나, 이들 중 50%는 6학년 이전에 떠나고, 나머지 중 50%는 중등학교에서 떠난다고 함.

표 3. 본 회의에서 실시된 주제 범주별 워크숍

주제 범주	워크숍
I. 지속가능발전 핵심 도전 과제와 ESD의 관련성	1. 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2.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처 강화하기 3. ESD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양식과 책임감 있는 소비 증진 4. ESD와 재해 위험 감소 : 재해-회복 사회 구축 5. 식량 안보를 위한 교육 : ESD의 기여 6. AIDS, 건강과 ESD 7. 교육과 학습에 생물종 다양성을 주류화하기 8.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적 측면(economic pillar) : 교육적 접근
II. ESD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9. 지역적이고 전지구적인 지속가능성 이슈를 통합하기 위한 학습 공간으로서의 ESD 10. UNESCO 생물권 보호 지역 11. ESD에서의 민간 부문의 역할 12. ESD를 위한 파트너로서의 매체 13. 북-남-남 및 남-남 파트너십과 개발 협력에서의 ESD
III. ESD를 위한 역량 강화	13. 전지구적 책무성과 지역적 현실: 제도적 틀을 통한 ESD 증진하기 14. ESD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15.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 교육 계획과 교육과정에 ESD 확립하기 16. DESD에서의 교사 교육 : 교찰
IV. ESD와 교수-학습 과정	18. EFA와 ESD의 시너지와 차별성 19. 취학전, 초등, 중등 학교에서 ESD를 통해 좋은 학교 만들기 20. ESD에서 고등 교육과 연구의 역할 21. ESD와 평생학습 22. ESD와 직업교육 - 기능과 노동 능력 발전시키기

교 등과 연계하여 각 워크숍의 주제와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여 견학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역시 각 참가자는 등록시 희망 워크숍을 신청하였으나, 이동 수단 및 장소의 한계로 인하여 참가자들은 원하지 않는 워크숍에 참석을 하거나 워크숍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워크숍 사례 1 :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처 강화하기

여러 워크숍 중 연구자가 참석한 워크숍 중 하나인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처 강화하기’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 워크숍에는 약 90명의 교육부/환경부 등 정부, 대학, 정부간 기구, 시민사회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처를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워크숍은 전

술한 바와 같이 전체 회의→분과별 토론→전체 회의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초반 전체 회의에서는 기후 변화가 수확량의 감소와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직접적 문제 제기를 토대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따른 기후 변화 문제와 이를 조장하는 개발 모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광범위한 행동이 필요함을 환기하였다. 그러나 여러 교육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여전히 주변적이며 소규모이고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되지 못함이 지적되었으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ESD와 통합하고 여러 이해집단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통한 효과적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와 스케일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도 강조되었다.

분과별 토론은 참석자의 희망에 따라 6개의 분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으며, 각 분과별 토

론 주제는 ‘기후 변화 교육을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육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파트너십과 네트워킹’, ‘교육 자료’, ‘가장 취약한 집단’ 등이었다. 각 분과에서는 각 주제와 논의 틀에 근거하여 기존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공유한 후 이에 근거하여 어떻게 기후 변화 교육을 강화하고 우선 순위를 찾고 가치를 더할 것 인지를 논의하였으며, 각 논의들은 국가수준/지역수준/국제적 수준 및 형식/비형식/기타 교육의 형태를 취하였다. 분과별 토론 후 다시 전체 회의를 통해 각 분과별로 논의된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실행 방안과 중요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로부터 참가자들은 현재 기후 변화 교육이 인식 증진에 너무 많은 초점이 주어져 있으며, 실천이나 생활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노력이 부족하므로 핵심적인 쟁점이나 좀더 ESD와 통합해서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이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transformative)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워크숍의 결과가 본 선언은 물론 향후 개최될 국제 회의들(UN summit on Climate Change(COP 15)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언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를 강조하여, 본 선언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게 되었다.

워크숍 사례 2: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 교육계획과 교육과정에 ESD 확립하기

워크숍에는 약 70명의 교육부/환경부 등 정부, 대학, 정부간 기구, 시민사회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교육 계획이나 교육과정 속에 ESD를 주류로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워크숍은 전체 회의, 분과별 토론, 토론 결과 발표와 전체 회의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초반 전체 회의에서는 독일의 교육 장관 상설 회의를 중심으로 ESD의 맥락 안에서

전지구적 발전교육(Global Development Education)을 위한 범교과 체계(cross-curricular framework)를 위한 교수 프로그램의 개발 사례와 ESD가 교육과정의 한 차원으로 사용된 코스타리카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분과별 토론에서는 이해집단 사이의 네트워크와 지역적 접근의 중요성, 고등교육과의 관련, 교과와 ESD, 인터넷을 이용한 ESD 학습 공동체, ESD와 북-남 학교 파트너십, 범교과 체계의 작성과 수행, 학교에서의 환경교육과 ESD 등이 논의되었다. 이 중 시사점을 가지는 것으로 학교 교육에서 ESD와의 연계는 ESD와 관련된 지식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실행 능력(action competency)에 대한 접근과 강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교과와 연계하되 학교 전체적 접근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II. 본(Bonn) 선언문을 통해 본 향후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방향

본 선언문은 회의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수정안이 배포되어 전체 참가자 의견을 수렴하였고 워크숍에서 제안된 주요 사항들은 워크숍 보고자를 통해 선언문 작성 그룹에 전달되어 최종 선언문에 일부 반영되었으며, 최종 전체 회의에서 참가자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본 선언문 작성과정과 중점을 발표한 찰스 홉킨스(Charles Hopkins) 유네스코 ESD 석좌교수는 본 선언문 작성시 2명의 글로벌 전문가와 18(6×3)인의 지역 대표, 참관인 등과 함께 가능한 한 포괄적(inclusive)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독성과 투명성을 중시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본 선언문은 2개의 부분으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현 세계에서 ESD의 중요성과 향후 실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⁶⁾. ESD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과 학습

6) 본 선언문의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esd-world-conference-2009.org/fileadmin/download/ESD2009_BonnDeclaration080409.pdf

한글 번역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unesco.or.kr/>

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여러 우선 순위와 쟁점들, 특히 물, 에너지, 기후 변화, 재해 및 위기 저감, 생물 다양성, 식량 위기, 보건, 사회적 취약성 등에 사회가 대처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ESD는 정의, 형평, 관용, 충만, 책임 등의 가치에 기초하며,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접근, 장기적인 사고방식, 혁신과 위임을 강조하고,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와 구체적인 삶의 조건과 관련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경과와 관련하여 전반 5년간 많은 국가들이 ESD 이행에 진전을 이루었고 혁신적인 정책 틀을 만들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교육과 인간의 행복 향상과의 관련, 과학의 중요성, 행동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향후 실천 방안으로 각국과 국제사회에 정책 차원에서 5개항, 실행 차원에서 13개항을 촉구 하고, 선도기관인 유네스코에 7개항을 요청하고 있다. 정책 차원에서는 ESD가 모든 교육에 기여하고 양질의 교육 성취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SD와 ESD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 증진, 충분한 자원과 예산 마련,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체계 재정향할 수 있는 정책 마련,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기제와 협력 강화 등을 들고 있다. 실행 차원에서는 통합되고 체계적인 접근, 교육과정과 교사 교육과정의 재정향, 연구·모니터링·평가 전략 도출, 훈련 및 직업 교육과 연수와의 ESD 통합, 청소년의 참여, 시민사회의 기여, 향토지식의 기여 등이 강조되었으며, 양성 평등과 네트워크의 중요성, 고등 교육기관의 참여와 시급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프로그램의 개발 등도 제안되었다.

유네스코에 요청한 항목 중 중요한 부분은 ESD 유네스코 국제이행계획(IIS) 성취를 위해 유엔개발지원계획(UNDAF) 등을 통한 유엔산

하기관과의 공동 협력을 강화하며, G8, G20, 코펜하겐 기후회의, EFA 고위급회담 등 주요 국제회의에 ESD 논의를 촉진하도록 ESD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IV. 본 회의의 시사점과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과제

본 회의가 주는 시사점과 이를 토대로 한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회의의 기초로 현재까지 수행된 ESD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들 수 있다. ESD를 위한 10년의 중간 지점에서 이루어진 본 회의의 참석자들은 ESD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즉, 각 나라의 ESD를 선도하는 정부 대표와 전문가들은 사전에 수행된 설문에서 현재까지의 ESD의 성과에 대해 반쯤 성취했다(452명, 65.2%)가 가장 많았고, 반쯤 부족하다(178, 25.7%), 충분히 성취했다(53, 7.7%), 아직 멀었다(10, 1.4%) 등으로 응답하였다⁷⁾. 5년 동안의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유네스코, 유엔기구, NGOs,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네트워크들은 각 나라에서 또는 지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실제적인 활동들을 전개해 왔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 회의에서 공유되고 교류되었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ESD 국가 추진위원회 등 추진체도 발족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개념의 정의와 이해가 낮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회의의 발표자들과 참석자들은 초반의 우려에서 벗어나 현재까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에 대해서도 낙관주의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낙관주의적 비전은 향후 각국의 ESD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ESD의 수행을 위한 국가 실행 전략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이선경외, 2005), 이를 토대로 국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지

7) DESD 1차 평가보고서 발표시 포함된 내용임. 전체응답자는 693명.

속가능발전위원회, 2006a), 이후 개정되는 교육 과정에 이들 전략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6b)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등 유네스코 관련 기구에서는 교사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침서와 책자를 발간하는 등(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6, 2007, 2009) 크고 작은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향후 국내에서 지속될 여러 노력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국내에서 어떻게 구체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ESD를 수행하고, 이의 결과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교육의 재정향상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본 회의는 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 및 방법으로서 ESD를 지목하였다. 현 세계는 금융과 경제 위기, 기후 변화 및 사회의 갈등 등 지구상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은 모두 실제적이며 복잡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치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변혁이 필요하고 교육이 이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ESD의 변혁적인(transformative) 접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회의에서는 회의 첫날과 둘째날에 걸쳐 실시된 핵심 주제 범주 1의 여러 워킹숍을 통해 물의 지속가능성, 기후 변화 교육,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재해 감소, 식량 안보, 보건, 생물종 다양성, 경제적 측면 등과 ESD의 연계 가능성이 탐색되었다. 연구자가 참가한 기후 변화 교육 워킹숍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 바와 같이 ESD가 가진 간학문적이고 변혁적인 특성을 이들 쟁점들에 잘 통합한다면 실효성을 가진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회의에서 수차 지적된 바와 같이 ESD가 단순히 도구나 방법적인 측면에 그치지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 및 변화와 관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ESD와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을 통합한 우수 사례를 모집하는 과정을 통해(KNCU, 2009) 현안 쟁점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ESD의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에서는 ESD와 국제이해교육의 연관 고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APCEIU, 2009). 이러한 노력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 교육이나 기타 쟁점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ESD를 주류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에 대한 요청이다. 현재까지 ESD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으며 이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들 노력은 대부분 주류라기보다는 시범적이고 주변적이며, 체제 전반에 걸쳐 있기 보다는 개인적인 또는 집단 수준의 작은 스케일에 근거한 경우가 많아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변화나 사회 전반의 변화를 찾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부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사례가 부각되었을 뿐(Lee, 2008) 교육계 전반에 대한 통합의 노력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본 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시도가 부각되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과 정책에 ESD를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논의가 있었으며, 독일, 코스타리카 등 실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였다. 이들 중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부각되는 능력(competency)에 대한 강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기존의 환경교육이 환경 및 환경문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Gough, 2006; Scott, 2009)는 점을 고려할 때 큰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 등 정부 기관의 관심과 더불어 ESD를 전체 체제 속에서 새롭게 진단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실제로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교육시범학교 및 친환경학교 관

런 여러 정책에 이를 포함하기 노력이 필요한데, 환경교육시범학교 및 체험활동 지원 사업 등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측면이 교과나 학교 전체 활동을 통해 접근될 여지가 많으므로(이선경외, 2006)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ESD를 위한 연구와 정책에 대한 강조이다. ESD가 논의되고 DESD가 시작된 이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회의에서 지적된 것처럼 ESD와 관련된 연구가 실천가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연구자 사이에서만 공유되어 이들 연구의 결과가 정책이나 실제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ESD 연구의 성과를 실천가들이나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긍정적인 사례로 ENSI(Environment and School Initiatives)⁸⁾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각 나라의 교육부 또는 환경부가 참여하는 연구 기반 네트워크이다. ENSI에서는 연구자들이 개발한 ESD 관련 질적 증거, 교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의 교육부 담당자들은 각 학교의 평가나 장학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다(Breiting *et al.*, 2005; Mogensen & Mayer, 2005; Mayer & Tschapka, 2008). 본 회의에서는 ESD 관련 연구자들의 참여와 더불어 교육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장관, 교육부 및 환경부 관료들의 참여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의 참여가 있었지만, 장관 등 실제적인 정책 입안자 수준의 참여와 다른 관련 부처의 참석은 미흡하였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섯째, DESD 1차 평가보고서와 본 회의 등을 통하여 ESD의 중요 요소에 대한 재확인과 재강조가 이루어졌다.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가치, 질 높은 교육, 참여, 실천 중심, 파트너십/네트워킹, 교사 교육, ESD의 수행 능력(competencies)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ESD 국제 이행 계

획과 과거의 제안들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회의에서는 사례에 근거하여 보다 진전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략들에 대한 논의들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국내 ESD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들 요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여섯째, 다양한 영역, 특히, 시민사회, 민간 영역, 언론 및 고등교육 기관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하였으며, 청소년 등 젊은 그룹의 참여에 대한 강조도 부각되었다. 이는 특히 본 회의 전 젊은이들의 사전 회의와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의 형태로 가시화되었으며, 회의의 여러 발표자들의 발제와 워킹에서의 논의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다.

일곱째, 아시아인의 참여에 관련된 부분이다. 회의 전반에 걸쳐 아시아의 참여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관찰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사례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ESD 보고서와 지역 사례, 부스 전시, 포스터 발표 등을 통하여 소개되었고, 중요한 회의와 프로젝트가 일본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이 공표되었으나 전체 회의에서 아시아와 아시아인의 비중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아시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특히 일본과 동등하게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여덟째,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환경교육과의 관련이다. 본 회의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사례들을 고찰하면 지속가능발전교육 분야가 주로 환경에 치중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환경교육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여전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속가능성의 여러 요인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지고 있는 사회 분야, 경제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요청된다. 제1차 DESD 평가보고서가 예시한 바대로, 환경교육(EE)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

8) <http://www.ensi.org> 참조. 본 회의 직전 ENSI에서는 그 간의 연구를 토대로 ESD에 관한 컨퍼런스를 벨기에 루벤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는 학교내 ESD를 증진하기 위한 ESD 증거, 교사의 competencies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으며, 많은 교사와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의 관계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반드시 ESD가 EE를 포괄하는 전략보다 캐나다, 네덜란드와 같이 공존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EE가 이미 굳건히 확립된 한국의 상황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2008년 지속가능발전법과 2007년 환경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한국의 환경교육의 기회 확대와 질적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인력과 프로그램의 인증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 요소에 대한 고려가 있다면 이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쯤 찬 물잔의 나머지 부분을 잘 채우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DESD의 후반 5년 동안 본 회의에서 논의되고 선언된 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들이 향후 ESD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본 선언과 회의에서는 정책적 차원과 실행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담고 있다. 또한, DESD의 선도기구로서의 유네스코에 대한 요청 사항을 담고 있다. 본 선언에 참여했던 우리나라 정부 관료와 전문가들은 이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ESD 관련 교육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데 이의 내용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는 정책의 실현에 ESD의 중요 원칙과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구와 자문을 통해 우수 사례와 이들 실천들의 의미를 부각하고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ESD 추진 위원회를 발족하고, ESD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며, ESD 우수 사례 공유와 논의를 위한 장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으로 개설하는 일 등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이들 요소들을 반영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6).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사용 지침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ESD와 EFA의 대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4. 이선경, 이재영, 이순철, 이우진, 민경석, 심숙경 (2005).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을 위한 국가 추진 전략 개발 연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5. 이선경, 이재영, 김인호, 김대희, 정철 (2006). *환경보전시범학교 및 체험환경교육 지원 사업 개선 방안*, 환경부.
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6a).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방안*,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6b). 「*주5일제 대비 교육과정 개정시안 검토의견*」,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미발간자료.
8. APCEIU (2009). *EIU Best Case Study, 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9. Breiting, S., Mayer, M. & Mogensen, F. (2005). *Quality Criteria for ESD Schools*, ENSI/SEED, Austrian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Culture.
10. Gough, A. (2006). Sustainable Schools in the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eeting the Challenge, *Southern Afric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3, 48-63.
11. KCNU (2009). *ASPnet Good Practice Development Project in Achieving MDGs through ESD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2. Lee, S. K. (2008).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n Schools, *International Textbook Research*, 30(2), 608-620.
13. Mayer, M. & Tschapka, J. (2008). *Engaging youth in Sustainable Development : Learning and Teach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Lower*

- Secondary Schools, Environment and School Initiatives* (ENSI), c/o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Flemish Community Curriculum Department.
14. Mogensen, F. & Mayer, M. (2005). *ECO-Schools Trends and Divergences : A Comparative Study on ECO-school Development Processes in 13 Countries*, ENSI/SEED. Austrian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15. Scott, W. (2009). 30 Years on from Tbilisi,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15(2), 155-164.
 16. UNCED (1992). *Agenda 21: Programme of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Rio de Janeiro, Brazil.
 17. UNESCO (2004).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Draft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cheme*, UNESCO, Paris.
 18. UNESCO (2005).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cheme*, UNESCO, Paris.
 19. UNESCO (2009a). *Basic Information Document. UNESCO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onn, Germany.
 20. UNESCO (2009b).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on the UNESCO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Bonn Declaration*, UNESCO, Paris.

2009년 6월 10일 접수
2009년 8월 11일 심사완료
2009년 8월 13일 게재확정